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진국일로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3: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3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김성관 목사 설교



농부와 참 포도나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요 15:1-2)

포도나무의 비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포도원의 농부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충실하게 열매를 맺어 축복된 추수를 거두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생활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로 하여금 사람의 몸을 입도록 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농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고 풍성한 포도나무로,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그 나무의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어야 했던 이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은 우리들과 하나님을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우리들을 연결하는 유일한 매개체가 되어 우리의 죄악 된 본성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열매를 맺게 합니다.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참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 말씀으로 벌들과 하늘, 바다와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렸고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심으셔야 했습니다.

돌보시는 사랑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심으신 농부가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를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잘 돌보아 주십니다. “나 여호와와 포도원이가 같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이다”(사 27:3).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지키고 살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잡초를 뽑아 추수와 토양을 기름지게 하시며 어떠한 해충도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물을 사랑하시며 늘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땅에 손수 심으신 포도나무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십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잘 돌보아 주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된 그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고 먹이시며 지키시고 온전히 돌보아 주셨습니다.

가지치기를 하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는 쓸모 없는 가지를 모아가다 불에 던지셨습니다. 생명이 없는 가지는 버림을 받았습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오직 과실을 맺는 가지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요 15:2). 하나님께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를 제하여 버린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농부가 쉬지 않고 일하면서, 동시에 조심스럽고도 가차없이 포도나무의 가지를 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비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각자의 가지가 서로 다른 모양으로 자라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인간마다 겪는 고난의 이유를 보다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가 삶의 고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는 그 고난의 의미를 설명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그리스도

인들은 참 포도나무의 살아있는 가지로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1절).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찾아 오셨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4절).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9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자신의 사랑, 가장 위대한 그 사랑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7절).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해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나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14:10).

중보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은 농부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심으신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비유는 것은 이 사람들과의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내 안에 되며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17:20-24).

그리스도와 참된 연합을 갈망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가 성숙하는 것을 세심하게 보살피 주십니다. 그래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시나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풍성히 맺도록 다듬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일치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은 곧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지키시는 농부이십니다. 농부되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생명이 없는 가지는 제하여 버릴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므로 많은 과실을 맺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Sermon of pastor Kim



The Divine Vinedresser

*"I a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vinedresser.
"Every branch in Me that does not bear fruit, He takes away;
and every [branch] that bears fruit, He prunes it, that it may bear more fruit"*
(John 15:1-2)

God plants a vine and introduces into this world the very principle of spiritual life with all its fruitful and blessed results. He appoints His only beloved Son to assume our human nature. God is the divine vinedresser. Jesus is the beautiful, healthy, strong and perfect vine and Christians are branches. God's planting of this vine is a heavenly thing that connects you to Him. It is the only connection you have to God. It is the only connection that can change your sinful nature into a holy nature that relates with God and thus makes you fruitful. It is only source for your salvation!

The introduction of the vine is something only God can do, for He alone is the creator. He created this world through His word. That's how powerful His word is. He created Adam and Eve, the stars, the sky, the oceans, the animals, everything by His word! He blessed everything He created. Humans didn't keep His blessing, so finally He plants the vine.

Not only is God the creator and planter of the vine but He is also the keeper of the vine. Yes, He watches over the vine. God closely tends His vineyard. We see this clearly in Isaiah 27:3, "the Lord, is its keeper; I water it every moment. So that no one will damage it, I guard it night and day." God doesn't leave the vineyard to care for itself. He protects it and takes care of it. He pulls the weeds, nourishes the soil, and makes sure that no harm is done. He loves His creation - He watches over His garden.

As God cared for and tended the vine which was brought out of Egypt for which He prepared the room and which He caused to take deep root so that it filled the land, so He watched over it. He blessed the true vine which He with His right hand planted in the soil of His earth. We must remember how well He took care of the Israelites in their forty-years journey through the desert. He was with them everyday. He protected them. He fed them. He cared for them completely. For they were His own and His hand touched them.

Not only that, but God removed the worthless branches and cast them aside to be burned. The lifeless branches were removed. This is really scary. Only the fruitful members of the natural vine constituted the person and ministry of Jesus Christ. The fate of the Jews is the best illustration of our Lord's meaning of, "Every branch in Me that does not bear fruit, He takes away; and every branch that bears fruit, He prunes it so that it may bear more fruit" (v. 2). The history of the Jews reveals God's removal of unfruitful branches. They were like branches that brought forth wild grapes - wild clusters that He removed.

On the other hand, you have to constantly keep in mind that the vine is always, carefully, closely and unsparingly pruned by the skillful gardener. You are not left in this world to your own demise. Quite the opposite, the faithful and fruitful Christian occasionally experiences satisfaction but not sovereignty. God's design for your growth is divine. You can't produce fruit on your own, only through God's care you can bear fruit. You are His divine disciple. As such,

you can better understand the reasons for human suffering. Religion does not make the sorrows of life. Religion explains them and helps to bear them and profit by them.

Christians should be the fruitfulness of all the living branches of the living vine. In that case, the promotion of His own glory is such that brings out the Lord of all. Jesus says, "I a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vinedresser" (v. 1). There must be no mistake about it. Jesus Christ is the true vine. He was born through the Virgin Mary. He had no Jewish blood. It is in the purity of His blood that all sin was forgiven. Faith in Him alone is the way to God's salvation. "Abide in Me, and I in you. As the branch cannot bear fruit of itself unless it abides in the vine, so neither can you unless you abide in Me" (John 15:4). You need Jesus to bear God's fruit. If you abide in Christ, God the Father and God the Holy Spirit will also abide in you.

So important is the knowledge of that, "Just as the Father has loved Me, I have also loved you; abide in My love" (John 15:9). Jesus invites us to be loved with the best kind of love - His love. He asks us to believe and obey His commands. Knowing His commands and words will control and guide our prayers, so that He can answer them, "If you abide in Me, and My words abide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done for you" (John 15:7). This is the amazing power of God's design for your salvation.

This is not something you can take lightly. You have to understand and believe that Christ is united to God the Father. "Do you not believ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s in Me? The words that I say to you I do not speak on My own initiative, but the Father abiding in Me does His works" (John 14:10). God is the vinedresser and Jesus is the true vine that God planted for us.

Jesus loves you so much. He intercedes on your behalf. He prayed for your glorification, that is, being with Him in eternity. That they may all be one; even as You, Father, are in Me and I in You, that they also may be in Us, so that the world may believe that You sent Me. The glory which You have given Me I have given to them, that they may be one, just as We are one; I in them and You in Me, that they may be perfected in unity, so that the world may know that You sent Me, and loved them, even as You have loved Me. Father, I desire that they also, whom You have given Me, be with Me where I am, so that they may see My glory which You have given Me, for You loved Me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John 17:21-24).

God planted a vine for His people. He watches over its growth with precision. He removes the branches that bear no fruit. He prunes and promotes the growth of those branches that bear fruit. God put Himself in the vine. Union with Christ is union with God. God is the divine vinedresser and Jesus is the true vine. Christians are the true vine branches. The vinedresser will take away those who do not thrive and grow on the vine. If you abide truly in Christ, through the cross, you will bear fruit and experience the glory of God's grace in eternal life.

믿음

(롬 4:13)

롬 3:9-18에서 바울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 인임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인정하지도 않고(3:11-12, 시 14:1-3), 그 믿음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3:13-14, 시 107, 140:3), 악행과(3:15-17, 사 59:7-8)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3:18, 시 36:1)으로 가득 차고 또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는” 하고 일의 내용과 다른 분명하고 놀라운 대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3:20) 이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3:21a)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나타난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3:21b)라는 사실을 덧붙이고 이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차림이 없느니라”(3:22)라고 선포합니다.

온 인류는 아담과 함께 죄에 빠졌기 때문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유대인이 가진 우선적인 특권은 지나갔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3:23). 이는 죄인 된 인간은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장엄하고도 놀라운 거룩함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영광에 참여하길 원하나 우리는 죄로 인해 이 영광에 참여하지 못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마음(창 6:5-7)은 만족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습니다(3:24). 다시 말해서 이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1:18), 우리 자신 속에서 죄가 드러났으며, 율법에 의해 정죄 되어(3:20) 믿음에 의한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 영적으로 영원히 살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하고 선인되었습니다(3:24).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으며(엡 1:7, 골 1:14),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다(1:17).

사람은 의롭게 태어나지 않았습다. 즉 우리를 속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 수 있는 선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엄격히

말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신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기를 인하여...”(신 7:6b-8a).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이나 행위야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며 은혜의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죄 된 인간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는 길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결코 그의 삶이나 선한 행위가 그를 의롭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결과 의롭다하심을 받았습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창 15:6). 그러므로 믿음의 결과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써 가진 것은 존재로 만드셨습다.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단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날마다 주 앞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구하며 감사함으로 사야만 합니다.

진실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고통을 받으신 것처럼 크나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어디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우리 자신을 끌고 가는 어디에서 우리 자신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다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짐을 지어줄 것이며, 우리가 소망하는 목적지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 존재하며, 모든 일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낙요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실로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 사랑의 흔적을 조금도 남기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이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진실로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의 약함을 고백하여 내 안이 그 분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해구 전도사)

"왜 사랑할까?"

우리 물도바 선교팀은 CMTC, 언어 훈련 등을 통하여 마음을 말씀으로 무장을 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기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말씀과 기도 밖에는 없지 않은가? 우리 물도바에 가서도 철저히 말씀과 기도로 다른 생각의 여지가 없게 오로지 성령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자 하였다.

그저 열심히 기도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 있었다. 이 곳 사람들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전쟁을 겪은지라, 서로 믿지 못하여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 주지 않다가 들었다. 그리고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주수와 이름을 적어 주기만 기대할 수 없었다고 들었다. 하지만 우리가 본 이들은 마음은 온유하고 사랑이 많아 보였으며 우리가 전도지를 주며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의 열려진 마음은 곧 표정이 완화되었고 감사하다는 말로 이어졌다. 주수, 이름, 전화번호도 서슴없이 적어 주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과 공원(주시진 공원), 학교, 고아원 등 여러 군데를 통하여 전도지를 돌리고 복음을 전했다. 그랬더니 북쪽 120Km 떨어진 농촌 형제들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전화로 알려 왔다. 우리 내리쬐는 강한 햇살을 받으면서 한켠도 없는 덥적거리는 봉고자를 타고 3시간을 달렸다. 도착한 농촌에서 한참 바쁜 일손을 놓고 농가에 40여명이 모여 있었다. 반짝이는 순박한 농동자들을 대할 때 코 끝이 시큰하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성령이 충만해지며 벅찬 감동이었다. 우리 아홉 사람이 그 나라말로 준비한 찬양을 했고, 이어서 강입구 집사님이 찬양을 드렸다. 팀장님이 말씀을 전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았다. 우리 하라님께 감사했다. 예배를 마치고 일일이 농부의 인사

를 뜨겁게 나누었다. 그곳의 안 믿는 형제들이 감동을 받아 믿겠다고 약속했다. 정말로 아름답고 감사한 일이었다.

오우에 우리가 묵고 있는 아파트 주변에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첫 날 우리 동네 아이들을 공작했다. 가운데가 공원 운동장이었다. 각자 준비한대로 머리를 깎아 주면서 복음서를 나누어주고 일일이 얹히고 영접기도도 드렸으며 찬송가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율동, 운동, 초상화 그리기 등 여러 가지로 놀아 주었다. 우리 며칠 사이에 많이 가까워졌고 서로 이름까지 알게 되었다. 마지막 날 석별의 정을 나누며 유류수 파티도 열었다. 눈물을 흘리며 아저씨라는 아이들도 많았다. 고등학생 쯤 되는 아이들 여러 명이 우리에게 “왜 우리를 사랑하느냐? 물도바를 진정 사랑하느냐?”하고 물었다. 우리 이렇게 대답했다. 한국에서 사는 물도바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물도바를 사랑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결론적으로 물도바는 화망이 있는 나라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촛불을 그으면 불같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히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소생시켜 이들이 복음으로 뜨거워져서 세계의 전교사로서 복음을 수출할 가능성을 보았다. 어떤 방법일지는 모르지만 불만 대면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번져나갈 조짐이 확실히 보인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많이 열려져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 팀들은 3500장의 전도지를 두루 돌렸다. 한 장도 버리거나 겹칠듯히 여기지 않았으며 고맙게 받고 귀하게 여겼을 보았다. 우리가 일회적으로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로 이 나라를 사랑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다.

조연숙 권사, 물도바 1교구 8지역



◆ 다음 주 출발하는 선교팀

팀	팀 장	선교지	일 자
17교구 11지역	한만교	우즈베키스탄	6월 3일(화)~6월 14일(토)
4교구 6지역	문효식	우즈베키스탄	6월 3일(화)~6월 14일(토)
5교구 7지역	전종일	우즈베키스탄	6월 3일(화)~6월 14일(토)

◆ 현재 시역 중인 선교팀

팀	팀 장	선교지	일 자
7교구 2지역	표왕렬	불가리아	5월 26일(일)~6월 5일(목)
13교구 6지역	강진택	불가리아	5월 26일(일)~6월 5일(목)

◆ 이번 주 도착한 선교팀

팀	팀 장	선교지	일 자
11교구 1지역	김인술	스리랑카	5월 19일(일)~5월 29일(목)
16교구 5지역	안성영	스리랑카	5월 19일(일)~5월 29일(목)
12교구 6지역	이성섭	우크라이나	5월 21일(수)~5월 30일(금)

▶▶▶ 우리는 복음의 사도

많은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와 주님의 역사하심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숙해져 모습으로 간증과 각오들을 풀어놓는다. 그들의 간증과 각오들을 통해 복음의 가명을 다시 돌아보고 올 한 해의 단기선교를 계획해 보자.

처음엔 선교가 남의 일 같았다. 내게는 선교보다 공부나 아르바이트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팀장님의 강력한 권유로 단기 선교를 나가 보니 선교하길 정말 좋았다는 생각을 했고, 선교가 무엇보다 소중한 것임을 알았다. 주께서 보내신 것임을 확신했다.

나는 토대신앙이며 식구들이 모두 교회에 다닌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나는 교회와 집을 그냥 습관적으로 오갔다. 그러다가 고 3때는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했다. 그때는 말씀 듣기를 사모해 수련회까지 따라갔는데, 수련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 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이 깊이 다가왔다. 그래서 대학부터 전한 뒤로는 말씀을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웠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을 선교의 관점으로 바라보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번 단기선교가 나의 신앙도 한 차원 성숙하게 해 준 것 같다.

나는 이집트로 선교를 다녀왔는데, 이집트는 콥트교와 이슬람이 주류이다. 콥트교도 기독교라고는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 의심을 품고,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슬람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마지막 날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나 정말 기뻐했다.

힘들었던 것은 비밀경찰이라는 사람들의 감시였다. 어딜 가든 감시가 있었다. 차를 타고 감시했고, 호텔에 들어가도 감시했다. 자기네 구역 을 넘어가면 우리가 넘어간 구역의 경찰들에게 우리를 인계했다.

막연히 다른 사람들의 일로 생각했던 선교가 이제는 꼭 필요한 것으로 다가왔다. 항상 나만을 위해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 그들은 복음을 잘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몰랐는데, 이것이 정말 안타깝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아주 쉽게 듣고 영접한 것에 정말로 감사한다. 복음을 듣는 것에 어떤 조건을 달았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은혜로 주시는 구원에 감사한다.



이선화 (대학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스리랑카 4교구 3지역 팀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벧전 1:9)이라는 주제의 모임을 통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가운데 4개월 간 단기 선교를 준비해왔다. 그리고 굶이굶이 아름다운 끝자락을 지나 약 9시간이란 시간이 흘러 목적지인 바둘라에 도착했다. 그곳은 산 속에 있는 도시, 아직 절사가 잡혀있지 않은 도시였으며 우상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그리고 그리 바쁘지 않으면서도 분주한 그 곳, 우리가 선교해야 할 바둘라.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시키셨고 이제 영적 전쟁터인 그 현장으로 우리 열 명의 대원들 투입시키셨다.

바둘라 인근의 여러 마을을 매일 방문하면서 때론 도로변에 접해있는 가정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올라가도 한 가정, 내려가도 한 가정일 정도로 집들이 띄엄띄엄 있었다. 새 가정 정도만 되면 큰 아장이었다. 그리고 도로변 전도는 차의 때문 때문에 목이 아팠고 힘들었다. 하지만 권사님들은 한 영혼이라도 놓칠새라 발 걸음을 재촉하였다. 차를 타고 이동 중에 우리 팀을 어떤 지역에 내려 놓으면 우리는 들쭉 짚지 어 전도지를 들고 그들에게 향하여 외쳤다. 가끔은 열심히 하다가 대원이 늦게 도착하기도 하였다. 노방 전도와 축조 전도를 병행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또한 이슬람 지역인 곳에서 권사님이 경찰에게 전도할 때는 매우 두렵기도 했지만 의외로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찰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더 뜨겁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심지어 서 있는 버스에서 올라가 복음을 전하며 전도지를 전해 주었다.

숙소에서 가까운 곳에 양로원이 있었는데 그 곳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었다. 노인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쳐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찬양하고 기도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마지막 이들 동안은 바랑고라와 라트나프라에서 복음을 전하러 했으나 정탐과정에서 매우 많은 비가 내려 그 곳 시역은 포기하고 바둘라 인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 않은 그 곳에 그 때 바로 56년 만에 큰 비가 내려 300여명이 복음을 잃었다는 말을 듣고 매우 안타깝게 하였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함으로써 지옥에 간 그 곳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선교가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이들을 더 바둘라 인근에 머물며 두 개조로 나누어 각자 200루피로 점심식료품으로 충당하며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사역하기로 하였다. 두 개조로 나누어 축조 전도 및 노방 전도를 하였는데 스리랑카의 멸절인 석가 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여 3일 연휴로(14-16일) 집집마다 온 식구가 모여 있어서 전도의 효과가 매우 컸다. 특히 절 앞에서 중례에서 복음을 전하는 집사님들은 정말로 담대했다.

그 곳에 뿌려진 씨앗들을 통해 개개인이 회심하게 되고, 가정이 복음화되며, 바둘라가 어두운것이 빛으로 변하고, 스리랑카가 복음화 되어, 우리가 갈이 선교하는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기도한다.



박원화 (집사, 스리랑카 4교구 3지역)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기를

신광철 (안수집사, 스리랑카 4교구 3지역)

저희가 간 곳은 스리랑카의 바둘라라는 곳으로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동산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동산에는 온통 산당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90% 이상이 불교인이며 10%가 무슬림과 힌두교인, 카톨릭이었습니다. 개신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땅이었습니

다. 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마을 회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서 약 3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곳에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30여 명의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유독 한 여인이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집회 시간 내내 그 여인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보였습니다. 이 한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곳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버스터미널에서 대기하는 승객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절에 있는 중에게도 전도했습니다. 경찰에게도 전도했습니다. 무슬림에게도 전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을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에서 앞서 행하신을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

다. 통역이 필요해서 기도했지만 통역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복이 아꼈지만 오직 복음만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학교에서도 부처를 배우고 부모의 손에 이끌려 부처 앞에 가는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24)라고 말씀하신 마음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 역시 ‘하나님! 우상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상에게 끌려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뿌리를 내려 그 땅에 주일학교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친구들을 위하여

이 동훈 (고동부)

난 이번 총동원 전도주일에 장기 결석자들과 새 신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주님께 기도를 했었다. 하지만 정작 내 주위의 친구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대학부에 있는 잘 아는 형이 에스더서에서 있는 한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 "이 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 미알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 4:14). 내가 어디에 처해 있는 그것은 주님께서 주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 때 난 주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미워하는 학교 친구들 생각이 나서 주님께 눈물로 기도를 했다. 나와 총동원 전도주일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나와 동일하게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총동원 전도주일을 준비하는 동안 그 친구들이 주님을 믿게 해 달라고, 또 내가 친구들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다.

난 총동원 전도주일에 기도회를 하고 나서도 친구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다. 그리고 예배준비를 하고 예배가 시작되는 동안 새 친구들이 많이 오나 안 오나 보고 있었다. 중요한 건 그 친구들이 복음을 듣는 것이겠지. 친구들이 많이 오길 바랐고, 친교모임 등 우리의 준비가 부족한 것도 걱정되었다. 예배가 끝나고 새 친구들이 자기소개를 하고 마치는 순간에 난 기뻐했고 한영의 박수와 환호가 나왔다. 난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두 사람 이상 모였을 때에 그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그것은 이 초창 잔치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의미이고 주님께서 이끄셨다는 의미이다. 난 지금 주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준비를 한 것보다 더 많은 행백을 주셔서 감사한다. 그것은 주님이 이 잔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난 이제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친구들에게 교회에 가자고 예수님을 같이 믿고자 할 것이다. 난 이번에 목표를 세웠다. 몇몇의 친구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할 것이다.

장학생 인터뷰 ⑧

천국일꾼이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파하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일꾼으로서 뚜렷하게 일한 바가 있다면 작년 8월 방글라데시로 단기선교를 다녀온 것이다.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은 치타공에서의 농촌 전도이다. 다른 곳에서는 무슬림이 많아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었는데 그 곳의 사람들은 처음 보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키우고 있는 소들과 아들다들 종종 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주었고 친지들한테도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단기선교 중 이런 일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주 인상이 깊었다.

나에게는 부족한 점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부족한 점은 교회에서만 그럴 듯하고 세상 속에서는 천국일꾼으로서 살아가지 못 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나쁜 언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천국일꾼으로서 본이 안 된다. 그래서 요즘은 자제하려고 노력 중이다.

내 주위의 모든 것들, 부모님, 형제, 친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모든 내 주위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내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도록 노력 중이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 31:31). 이 말씀을 읽고 생각했다. 내가 욕을 하면 그 욕의 열매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그 칭찬이 내게로 올 것이다. 이 말씀을 접한 뒤 다른 누군가를 욕하고 살아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했다.



박주영 (고동부)

전도부 이야기

주은혜 (고동부)

저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신앙이 아주篤실한 사람으로 봐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그렇지 못했었습니다. 왜 과거형 이냐구요? 물론, 지금도 독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단지 예전에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께서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으며,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몰랐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전도부에 들어가서 전도에 대하여 지금까지와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 다. 저는 전도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며 아주 기차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전도란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며,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 주님을 전하는 말 한마디가 바로 전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 한 마디, '주님을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 하는 것을 왜 그 리 힘들어했었는지요. 총동원 주일이 와도 친구들 집이 멀다는 등, 친구들이 다 교회를 다닌다는 등 핑계를 대며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 다. 참 바보같은 것이었죠. 처음 저의 이런 생각과 행동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정말 저 자신이 한없이 죄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전도에 대하여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서 '내가 왜 이런 것을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는 이유이며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믿으라는 그 한마디를 전할 것입니다.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기도로 준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와 함께 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지식 ①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 갖추는 조건으로 권력과 돈과 명예를 든다. 그리고 성경은 성도가 이것들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시킨다. 현대 사회에서는 세상의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 갖추는 조건이며 성도가 경제학에 할 것으로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한다. 바로 지식이다. 많은 성도가 지식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성경이 지식을 쌓으라고 권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명백하게 세상의 지식에 대해 경계시키고 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들과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골 2:20). 물론 이 말씀은 세상의 지식을 완전히 단절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근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잠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지 않고, 세상의 지식이 근본이 되는 자는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아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으로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골 2:8).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이 만든 것들이 대부분이므로 그것들을 근본으로 삼는다면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아는 데 방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가 세상의 지식보다도 말씀을 아는 데 더 집중하도록 권한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냐 저것이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히 5:12).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학교에서 세상의 지식을 배우지만, 말씀을 통하여 그것들이 진리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배워야 한다. 그리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면 오히려 세상의 지식까지도 주를 알게 하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은 목자가 먹여주는 것이며 자신들은 목자의 말씀을 받아 먹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모든 성도가 말씀을 배우라고 한다(마 11:29). 설교자가 복음을 말하러도, 믿은 지 오래되어 선성이 되어야 하는 성도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도가 책망 받아야 할 일이다. 여러분은 세상의 지식보다도 성경을 알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참조 (권오섭)

구역탐방

죽었으나 산 자요(롬 6:6-14)

4교구 신반포구역 / 구역장 이미경 집사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한 권사님이 부활을 통해 성도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며 구역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의 삶이다. 즉,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났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었다. 이 명료한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다. 이 명료한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는다. 왜 죄성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칭함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다.

구역장은 죄의 종이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태어나 주의 종이 되지만, 새롭게 태어난 뒤에도 옛 주인인 죄의 유혹이 끊이지 않고 항상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지만, 죄의 유혹은 끊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 믿음의 싸움은 매일 매 순간 계속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영화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이다. 어떤 성도는 편할 때일수록 이 믿음의 싸움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고 고백했고, 어떤 성도는 반대로 삶에 지쳐 너무 힘들 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역장은 “죄의 유혹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도는 끊임없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구역원들에게 가장 큰 시험은 자녀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성도는 자녀 시험기간에 교회 봉사를 안 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말하지 못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우리는 주의 완전한 은혜로 죽음을 이기었다. 그런데도 세상의 사소한 문제들에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말하지 못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죄의 종이 아닌데, 세상의 종이 아닌데, 왜 우리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닌 죄와 세상의 유혹에 귀 기울이는가. 죄와 세상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성도가 되자.

(권오섭)

다음 주일 찬송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가의 작시자는 하트(Joseph Hart, 1712-1768) 목사이다. 그는 영국 런던의 어떤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신앙을 버리고 거칠고도 방탕한 청년으로 타락했다. 그러던 중 1757년 영국의 페터 레인에 있는 로마리안 교회에 죄의를 품고 갔다가 강력한 설교를 듣고 극적으로 회심하게 되었다. 그 이후 그는 많은 찬송사를 썼고 런던의 제원 거리 회중 교회 목사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열심히 일했다.

1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지의 위로와 없는지의 풍성이며

천한자의 높음과 겸한자의 높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니

2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억한자의 겸함과 노닌자의 빛이시며

병든자의 고침과 죽은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령 되시니

3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자의 정함과 죽을자의 생령이시며

죄인들의 중보와 열방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니

4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회의 머리과 만민국의 구주이시며

모든 왕의 원이요 심판하시 주님되고 우리 영광 되시니

이 곡의 작곡자는 루소(J. J. Rousseau)이다. 이 곡은 4분의 4박자 곡으로, 네 마디를 하나의 단락으로 노래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고통 당하고, 병들고, 소외 당한 자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찬양드리자.

(전광우목사)

마틴 루터의 십자가



7. 날이 갈수록 더 놀라운 십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무엇이 우리를 가장 크게 놀라게 할까? 천국을 장식하고 있는 형형색색의 보석들일까? 우리를 받게 될 상급의 크고 많음일까? 아니다. 우리를 가장 크게 놀라게 할 것은 단연코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것이다. 왜 그럴까?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완전히 알게 될 것이고(요전 13:12),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알지 못했던 풍성한 내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 있음을 깨닫고 경이로움에 사로잡힐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노라면 이 땅에서 그 어떤 경이로움을 어느 정도 미리 맛볼 수 있다.

신앙이 초보 단계에 있었을 때, 나는 내가 단순히 죄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워가면서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영적 세계의 실상을 알게 되었고, 중생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사탄의 권세 아래 끌려다니고 있는 존재인을 깨닫게 되었다(요일 5:18-19, 롬 2:23, 눅 11:21).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배후에 언제나 사탄의 강력한 권세가 있음을 알고서는 소스라치지 않을 수 없었다. ‘죄책(罪責)과 부패한 본성만 해도 무거운 짐이었거늘 사탄의 강력한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존재였다!’... 이 같은 깨달음은 십자가와 구원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감격의 지평(地平)을 열어주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사탄의 강력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골 1:13-17).

이와 관련한 루터의 존스 목사의 설교를 다시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그곳에서 이루어진 승리를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우리를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에 내게 아직도 너무 적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손실이 아주 많음을 반성하게 되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으므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곳, 십자가!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창 3:15)라는 하나님의 첫 구원 약속이 실현된 곳, 십자가! 이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응시(鷹視)해야겠다. 그리하여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승리의 기쁨이 솟구쳐 오르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그 승리를 의지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겠다.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태백 목사)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노순희, 박중순 부부를 소개합니다



(권오섭)

천주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면서 삶이 변화하기를 기대했으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어설픔게만 했던 것도 아니고 봉사도 열심히 했었지만, 뚜렷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박중순)은 한 장로님의 인도로 교회에 나가다니 완전히 변했습니다. 슬, 담배를 끊은 것은 물론이고, 항상

말씀을 보는 등 성품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천주교를 정리하고 남편을 따라 교회에 왔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죄인이라 죄를 짓는 것이며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이 이룬다.” 믿기 전에는 나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주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니 오히려 행복하고 편합니다. 교회에 온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고 믿으며, 예수님과 내가 단지 주종관계가 아니라 신부와 신랑의 관계라는 사실이 큰 기쁨이 됩니다.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651	박중순	1	청년1 김보석(14)	659	이영진	8	청년1부 강인성(8)	667	김경은	13	청년2부 박연희(13)
652	이재욱	1	청년2부 송정현(14)	660	김진수	8	청년2부 서희하(17)	668	최수정	17	청년1부 왕인숙(17)
653	최희재	2	청년1부 강재우(1)	661	박정문	9	청년1부 박영순(13)	669	이성연	19	청년2부 이준희(4)
654	한재현	2	청년2부 강재현(1)	662	이우진	9	청년1부 김우현(16)	670	박준민	19	청년1부
655	한지현	2	청년1부 강재우(1)	663	김은숙	9	청년2부 조인배(9)	671	김태욱	19	청년1부 김은숙(5)
656	한지현	2	청년1부 강재우(1)	664	최우진	11	청년2부	672	김민정	19	대학부 김교경(4)
657	강정숙	5	청년2부	665	부유복	12	청년부 태광자(10)	673	김태욱	19	대학부 이진경(6)
658	박익우	6	청년1부 이진경(6)	666	임소숙	19	대학부 이진경(6)	674	이성훈	19	대학부 이원환(4)

※ 출전교회의 한 가족이 이 기사를 원하시면 본분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안식에 들어가라

손 송 이 (소년부 전리원)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요셉은 애굽이 흉년 일 때 곡식을 저장해 두어서 온 지역에 흉년이 오자 애굽에만 곡식이 있었습니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불렀습니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갈 때는 600만 명이 되었습니니다. 게다가 그들은 재물도 매우 많이 가져왔습니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갔습니니다.

가나안 땅은 비옥해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가 어른 두 명이 메고 다닐 정도로 갔습니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니다. 그 정탐꾼 중 10명은 거인 때문에 불평했습니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려고 했으나 원망했기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원망한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이 없었고 죄만 지었습니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포로가 되었고 다시는 큰 과일이 맺히지 않았습니니다.

우리에게 남은 참 안식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계시게 해서 모두 함께 천국에 가야 합니다.



진리의 새 밭

에베소서(Ephesians)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②

우선, 에베소서를 읽으실 때에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서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분열을 다루기 위해서 기록하게 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성전에 오는 것조차 싫어했으며, 바울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바울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을 정도로 이방인들을 멀리했습니니다(행 21:28-29). 이러한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차이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발생하게 되었고, 유대인과 에베소인을 양측을 모두 분별력 있게 다룰 수 있는 적임자인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므로' 더 이상 율법에 의한 인종적인 분리가 필요치 않음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겠다고 말한 나다(엡 2:15).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하나'('one' or 'the unity')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와 연관지어 사용하고 있으며(2:14, 16), 하나님의 작용과 함께 그것을 힘써서 지켜야 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4:3-6, 13).

또한 에베소서를 읽으시면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부요함, 즉 그리스도의 교회가 왜 부요한 자들의 모임인지를 공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새 바울은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끝박과 고난 그리고 세속 종교와 사상들과의 투쟁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부요한(riches)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풍성함(7, 27),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18), 하나님의 공용의 풍성함(24),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30), 그리고 영광의 풍성함(3:16) 등 하늘에 속한 영적인 풍성함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요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요함은 양자됨과 축복, 상속과 하늘에 속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부요함을 삶에 적용시키고 있는데, 그 삶에 있어서도 진리와 사랑, 기록한 등이 부요한 자들로 살아가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를 읽으시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왜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신자들의 모임인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주제로 정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 중심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혹은 '그 안에서' (in Him)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가장 확고한 증거가 됩니다. 즉, 그리스도가 모든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중심이 되시면서, 동시에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가 맺는 놀라운 영적 연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에베소서를 읽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표시하면서 읽으시고,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김희영 목사(출판국지)

유년부 전도잔치

전 영 선 (유년부 교사)

유년부의 매 주일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잔치날 같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어린이들과 사랑으로 기도하고 양육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별히 지난 주일(5월 25일)에는 유년부에 잔치 잔치가 열렸다. 전도 잔치가 열린 것이다.

새로운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 초대하는 전도 잔치는 그야말로 축제의 한 마당이었다. 유년부에서 새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것은 색 고운 풍선 장식, 환영, 찬송, 인형극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주제 성구로 하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설교 말씀이었다.

"유년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아이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다. 율장출망 앉아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도 목사님이 던지시는 질문에 아이들은 그렇게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주 오랜 옛날, 시몬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2부 순서의 하이라이프는 왕관을 쓴 많은 새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맞추어 입장하고, 유년부 친구들이 오색 깃발을 흔들며 환영하는 순서였다. 곧이어서 '예수님 믿고 천국가요~'라는 플랜카드가 담긴 막을 티트리하는 순서가 뒤 따랐고, 인형극도 펼쳐졌다. 이날 유년부에 초대받은 새 친구들을 잔치를 마치고,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저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겠다는 고백을 하여 유년부의 온 식구들이 다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다. 연초부터 계획된 유년부의 큰 잔치는 이렇게 풍성하게 치러졌다. 오랜 기간의 학원 전도와 선생님들의 릴레이 기도가 잔치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밑거름이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과 대예배는 참석하면서 유년부 예배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을

유년부로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한 명이라도 천국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먹여 주시는

목사님과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많이 보내 주세요."

수호천사

정 지 원 (소년부 사관생)

예수님은 우리의 지킴이!

예배시간에 잠깐치고 싶을 때,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 올 때,

지켜주시는 지킴이 수호천사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거짓말을 하거나 친구랑 싸운 죄를 없애주시는

생명의 수호천사

예수님은 따뜻한 사랑!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면

달려와 보살펴 주시는

사랑의 수호천사

예수님은 우리가 부르면 오셔서

우리의 수호천사가 되십니다.

교회 소식

알림

1. 제3차 학습·세례식 안내
2023년도 제3차 학습·세례식이 22일에 있습니다. 학습 및 세례·입교·개종을 원하시는 분들은 담임교역자에게 문의 (다음주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1. 정기모임
일시: 4(일) 수 2주2부 예배 후
장소: 당회실
2. 안수집사자 월례회

- 일시: 오늘 15:30
장소: 교육관 201호
3. 삼일인 기도회 영성훈련 및 월례회
일시: 3(화) 19:00
장소: 충현기도원
4. 전사 1차회 월례회
일시: 4(수) 수요일 1부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5. 안수집사자 수련회
일시: 5(일) 6(월) 1박2일
장소: 충현기도원
6. 경찰 전도회 월례회
일시: 8(일) (다음주일) 15:30
장소: 본당 112호

결혼

1. 권오성 군(강원권 집사의 아들, 17교구)과 이진숙 양(이영덕 집사, 양종숙 집사의 딸, 예바다교회) / 6(일) (금) 11:00 갈릴리움
2. 정성호 군(문성교의 장남) 장모, 정숙 양(이성복 목사) / 6(일) (금) 11:00 갈릴리움
3. 최우현 군(정종호 집사, 김계명 집사의 아들, 11교구)과 김경선 양(김승소 씨, 하순일 씨의 딸) / 7(토) 14:00 잠실교회 회관 대강당 3층(14관)

별세

1. 이순석 집사
유방남 성도의 부인, 17교구 죽전 1구역 / 5(일) 23일 별세, 5월 24일 장례
2. 송영환 성도
송병호 집사의 부인, 고령중 권사의 시모, 김재현 권사의 남편, 17교구 성원구역 / 5(일) 24일 별세, 5월 26일 장례
3. 김명현 성도
유정자 집사의 모친, 김종용 안수집사의 장모, 8교구 행당 2구역 / 5(일) 25일 별세, 5월 27일 장례
4. 정은성 성도
박병호 집사의 모친, 15교구 초록 1구역 / 5(일) 27일 별세, 5월 29일 장례
5. 손삼순 씨
백씨 성도의 모친, 19교구 / 5(일) 27일 별세, 5월 29일 장례

충현기도의향

1.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하여서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동료로 사용하시 주소서.
2.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3.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4. 충현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5. 모든 위원회에 속한 가인들이 주어진 본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천으로 함께 지어지 가게 하소서.
6. 교구별 대안자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에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7.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직원모집

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부서
동산 신약관리(숙식제) 문진직
미화직, 경비직
2. 자격
세례교인
3. 제출서류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본
당회장 추천서(제2인)
4. 서류제출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 52-6200

충현교회

2023년도 제3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6월 8일 (주일)	1교시 15:00~15:50	성경개요 (김익환 목사)	교육관 309호	교회론 (김교성 목사)	교육관 304호		
	2교시 16:00~16:50	기독교론 (이성복 목사)	교육관 309호	구원론 (위진환 목사)	교육관 304호		
6월 15일 (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고광환 목사)	교육관 309호	세례론? (방준영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세례론? (안창학 목사)	교육관 301호
	2교시 16:00~16:50	문답	교구별 장소	문답	교구별 장소		
6월 22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	(자녀 찬양예배, 본당)		유아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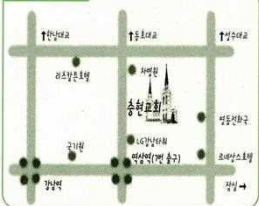
이번주 새벽기도회 담당

	2(월)	3(화)	4(수)	5(목)	6(금)	7(토)	8(주일)
설교자/기도자	이종철/최지윤	김영훈/박성자	여국근/김무하	김교성/한병호	안창학/권철	방준영/홍순애	임현덕/김연식

예배 담당안내 (6/4~6/8)

날짜	예배	예배 전 찬양	사회	기도	설교
6/4 수요일	수요일		정현민 사경진	배옥순 배춘식	알마나 회생해야 할까(눅 14:25-33) 여성기 목사 알마나 회생해야 할까(눅 14:25-33) 여성기 목사
6/5 목요일	목요일	신앙심화 (소망부 찬양단/새가족부 교사 연합찬양단/찬양위원회의 찬양단)	이종대	사경진 목사	
6/8 주일 I	주일 I	큰 노래 빠진 나를 외/임아누영 여성찬양단(지도: 홍성미)	장 훈 사경진	안동원 최귀길	농부와 참 포도나무(요 15:1-2) 김익환 목사 참 포도나무와 가지(요 15:1-5) 김영록 목사
6/8 주일 II	주일 II	큰 노래 빠진 나를 외/임아누영 여성찬양단(지도: 홍성미)	사경진	이태식	농부와 참 포도나무(요 15:1-2) 이종대 목사
6/8 주일 III	주일 III	속죄하신 구세주를 외/이영찬 찬양단(지도: 김송자)	정진호	이형수	농부와 참 포도나무(요 15:1-2) 이종대 목사
6/8 주일 IV	주일 IV	가보리산 위에 외/랜드웨이 교회(지하: 송세일)	김정수 정현민	이병학 최효일	농부와 참 포도나무(요 15:1-2) 류필복 목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요 6:68) 이종철 목사

교회 오시는 길



성 · 기 · 본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사경진 박인기
이성환 류병희 이종철 김영록 여국근
김교성 이우진 안창학 방준영 나영원
정진호 김용덕 이성복 고광환 김광남
위진환 김희관 김정수 장 훈 임현덕
이희식 최홍철 하종철 안치현 이태복
장준성 양재용

■ 전도소도 이장철

■ 여전도소

- 정영희 신동자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우주 김말자 안태순 김경원
조옥자 강덕필 김경선 강계주 최문실
전은희 김성준 김경자 이수준

■ 전일모임

- 전일모임 강영국 전일회화 서순식
전일모임 강소연
전일모임 강기영 (소모임)
전일모임 하효성 (소모임)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본당
	IV 오후 1:00 (동서합동 예배)	본당
	V 오후 3:00 (물려가신 드리는 예배)	본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1 오전 11:00 2 오후 7:3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기도원 안내

집회	시간	차량
초등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금요찬양	오후 11:00	본당 앞 주차장 본당 앞 주차장

*목요일 10:00 / 월, 화, 목요일 7:00에
동문비밀실 앞 출발하러 기도원차량이
운행합니다.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영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110호	창년 1부	오후 12:20	교육관 501호
	II 오전 10:50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유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201호	창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II 오전 10:50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유 처 부	I 오전 9:00	제2교육관 1층	창년 3부	오후 12:15	교육관 204, 205호
	II 오전 10:50			오후 12:15	교육관 207호
유년 부	오후 10:30	교육관 307호	신혼가정부	오후 12:15	교육관 204, 205호
	오후 10:30	교육관 307호		오후 12:15	교육관 207호
초 중 부	오후 10:30	교육관 301호	사 랑 부	오후 12:15	교육관 204, 205호
	오후 10:30	교육관 301호		오후 12:15	교육관 207호
중 동 1부	오후 9:00	교육관 301호	예배다부	오후 12:15	교육관 204, 205호
	오후 9:00	교육관 301호		오후 12:15	교육관 207호
중 동 2부	오후 9:00	교육관 401호	타 자 부	오후 12:15	교육관 204, 205호
	오후 9:00	교육관 401호		오후 12:15	교육관 207호
중 동 3부	오후 9:00	교육관 501호	출현원어이집	오후 12:15	교육관 204, 205호
	오후 9:00	교육관 501호		오후 12:15	교육관 207호
고 동 부	오후 9:30	제2교육관 4층	조기교육원	오후 12:15	교육관 204, 205호
	오후 9:30	제2교육관 4층		오후 12:15	교육관 207호
대 학 부	오후 4:00	제2교육관 4층	국제대학원	오후 12:15	교육관 204, 205호
	오후 4:00	제2교육관 4층		오후 12:15	교육관 207호
청년 1부	오후 11:00	제2교육관 4층	출현원교로원	오후 12:15	교육관 204, 205호
	오후 11:00	제2교육관 4층		오후 12:15	교육관 207호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 오전 1시에 드리는 주일 4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